

성별	남	나이	71세	직종	모터카 운전기사	직업관련성	쟁점
----	---	----	-----	----	----------	-------	----

1. 개요

이○○은 약 34년간 디젤 기관차, 전동차 기사로 일하였고, 이후 4년은 급유원으로 일하였다. 퇴사 후 A사에서 모터카 운전을 하던 중, 2009년 11월경부터 우측 목 부위에 촉진되는 종괴 소견이 있고, 가슴답답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모병원에서 두경부암을 진단 받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2. 작업환경

이○○은 1964년 2월부터 약 34년간 전동차 기사로 일하였고 이후 4년은 급유원으로 일하였다. 이후 퇴사후 모터카 운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력설비 신설공사를 맡은 A사에서 공사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5시간이었다. 터널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화차에 자재를 적재하고, 동료근로자는 모터카에 탑승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였으며 모터카를 운전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 외부작업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분진에 노출 되었으며 1회용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작업환경 측정 기록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1964년부터 약 34년 간 전동차 기사로 종사한 뒤, 2001년부터 약 7년간 모터카 운전기사 일을 해왔으며 그 동안 건강진단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009년 11월 경부터 우측 목 부위에 촉진되는 종괴 소견이 있고, 가슴답답함, 객담 등의 증상이 있어 모대학병원에서 두경부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K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두경부암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력

도 없다.

4. 고찰

두경부암(악하선의 편평세포암)의 경우 시멘트 분진, 다방향족탄화수소, 디젤연소물질 등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나 명확히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 국내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석면(90%이상함유, 0.003~0.004 fiber/cm³)이 검출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기준치에 가깝거나 초과된 상태로 검출되며, 라돈, 심리적 폐쇄감, 일조감 저하로 인한 생리주기 변동 등의 건강 유해요인이 존재한다.

5. 결론

근로자 이○○의 두경부암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두가지 견해로 나뉘어졌다.

업무관련성 있음

- 암의 원발부위가 폐암, 후두암이라면 라돈, 석면, PAH등에 40년간 노출되었고 비흡연자임

업무관련성 판단불가

- 약 40년간 디젤기관차를 운전 및 모터카 운전을 하였으며,
- 디젤연소물질, 석면,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 원발부위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